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 종교 성향 및 영적 성숙도의 관계

임신일(예수대학교)*

형희경(예수대학교)**

김대용(예수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종교 성향 및 영적 성숙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부모-자녀관계, 종교 성향, 영적 성숙도의 관계와 구조는 어떠한가? 둘째, 부모-자녀관계, 영적 성숙도의 관계에서 종교 성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이다. 연구를 위하여 전북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3개교 학생 79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기독교인 341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자녀관계와 종교 성향, 영적 성숙도의 구조적 관계는 적합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 친밀관계는 내재적 종교 성향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부모와 자녀 간 엄격한 관계는 내외재적 종교 성향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청소년의 종교 성향 중 내재적 종교 성향이 영적 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더불어 부모-자녀관계와 영적 성숙도의 관계에서 내재적 종교 성향은 완전매개를 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제한점을 기술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부모-자녀관계, 종교 성향, 영적 성숙도

* 주저자 : 예수대학교 교직부 조교수, 학생상담센터장

** 교신저자 : 예수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 공동저자 : 예수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교목실장

2015년 1월 26일 접수, 3월 23일 최종수정, 3월 24일 게재확정

1. 서론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성숙을 향한 성장”을 의미하듯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성적, 지적, 심리적으로 급변하는 과도기적 발달단계이다. 청소년들은 이 시기의 여러 가지 변화를 자신의 새로운 감각 속으로 통합시켜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부분은 인생의 후기에 되풀이되기 때문에 인격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스트레스 인지율 41.9%, 우울감 경험률 30.5%, 자살생각률 18.3% 등으로 심리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들이 많음을 보고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2: 32-33).

이러한 불안정을 겪는 청소년들이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데 현대에 들어서 강조되는 것이 영성(spirituality)이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초월적 절대자와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삶의 의미와 목표를 바라보게 하는 자연스러운 내면적 욕구 및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김재연, 2008: 2).

국가에서 실시한 2012년 청소년 가치관 조사(임희진 외, 2012: 88-91)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50.0% 정도로 중국(20.8%), 일본(22.2%)보다 많았고 종교의 종류는 개신교(26.4%), 불교(14.8%), 천주교(7.7%) 순으로 기독교가 가장 많았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의 37.7%가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종교를 갖는 이유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가 비율이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대다수에게 종교는 심리적 안녕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임을 보여주고 있다. 올포트(Gordon W. Allport, 1967: 20-30)는 사람들에게 종교 성향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내재적 성향과 외재적 성향이라고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였고 이는 심리적 성숙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긍정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데 종교 성향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안정적인 심리적 상태에 도움이 되는 영적 성숙과 종교 성향은 어디서 영향을 받는 것일까? 이는 매우 중요한 교육적 주제이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와 종교 성향, 부모-자녀 관계와 영적 성숙, 종교 성향과 영적 성숙 등 각 변인들 간의 관계들

을 단편적으로 다룬 연구들이었고 변인 간의 구조를 밝힌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종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독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 종교 성향, 영적 성숙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해 영적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살펴보고, 영적 성숙과 내재적 종교관을 갖기 위한 개입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관계, 종교 성향, 영적 성숙도의 관계와 구조는 어떠한가?

둘째, 부모-자녀관계, 영적 성숙도의 관계에서 종교 성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고찰

1.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관계란 일차적 사회관계이며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자녀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아니다. 하영희(2004: 42-52)는 부모갈등, 부모애착 및 우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박현선(1998: 114-115)은 공부압력이 청소년 비행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성향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자녀 간의 애정/신뢰 관계가 그 영향을 완충한다고 하였다. 부모애착과 청소년기 영적 안녕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박지아(2003: 35-36)의 연구와, 부모 자녀와의 관계, 애착정도가 자녀의 하나님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이창호(2009: 84-86), 정선미(2008: 48-50), 김은영(2012: 21-30)의 연구 등을 볼 때,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자녀의 종교 신념이나 영적 안녕과 관련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 관계는 자녀의 자아개념 및 종교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 적응이나 학업성취, 문제행동 등 여러 심리사회적 적응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종교 성향

피테트(Peteet, 1985: 54-56)는 종교란 신앙의 외적표현으로서 영성을 표현하는 하나

의 수단이 되고 믿음, 윤리강령, 전례행위 등을 강조하며 동시대의 문화적 가치나 개인적 철학을 반영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올포트(Allport, 1967: 28-29)는 종교 성향에 따라 인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종교 성향이란 ‘종교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방향 및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종교적 동기와 태도에 따라서 내적인 성향(Intrinsic Orientation)과 외재적 성향(Extrinsic Orientation)으로 구분하였다. 외재적 종교 성향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미성숙한 신앙이며 부적응을 많이 나타내지만, 내재적 종교 성향은 종교에서 삶의 중심적인 동기를 찾으려 신조를 내면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성향으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였다. 성숙한 종교라 할 수 있는 내재적 종교 성향을 가지고 종교적 가치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절대자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된다. 이는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심리적인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김소연, 2011: 54-59).

청소년기에는 형식적 조작적 사고능력에 기초하여 진정한 의미의 종교적 사고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종교에 대한 경험과 사고를 깊고 풍부하게 하여 정체감 형성에 있어 긍정적이며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에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청소년기에 정립된 내재적 종교 성향이나 성숙된 종교성은 위협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가치판단이나 가정, 학교생활에의 적응, 긍정적 대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며(이상균, 2007: 33-37; 최태훈, 2013: 181), 청소년들의 탄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소연, 2011: 45). 김은희(2006: 53-61)는 외재적 종교 성향이 스트레스와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김미경(2013: 55)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재적 종교 성향과 심리적 안녕감과 강한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외재적 성향과 내재적 성향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3. 영적 성숙도

영성(spirituality)은 인간의 내적자원의 총체로서 의식적, 감성적, 도덕적, 지적, 신체적 가치들의 원리를 창출해내며 인간의 생각, 태도, 행동을 유발하며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삶에 근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절대자와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

화된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오복자·강경아, 2000: 1145-1155). 진정한 영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자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 발견한 것을 절대자와 함께 더 높고 거룩한 차원으로, 더 이타적인 차원으로 넓히고 높이고 깊게 만들어 준다. 하지만 영성적 삶의 추구에서 보여지는 내면성, 자기성찰, 초월적 경험, 직관, 감성, 지혜, 삶의 목적성과 윤리적 판단 등과 같은 다채로운 자아에 대한 지식 등은 계량화하거나 수치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영성은 계몽주의 시대 이후의 기술적이며 과학적인 지식이나 도구적 이성, 믿을만한 궁극적 기준으로 자리 잡은 이후, 사물을 아는 기본적인 방식인 관찰, 측정, 예측, 조작, 계량화와 수치화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절대자와의 궁극적 합일을 지향하는 삶에 대한 수치화를 시도하려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자와의 만남에 의해 형성된 믿음을 삶의 경험으로 표현한다는 데 초점을 두어, 새롭게 바뀐 삶의 방식은 공통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원리를 역으로 활용하면 보이는 영적 현상이나 삶의 변화들을 분석하여, 각 개인이 보이지 않는 영적 근원으로 연결되도록 유효한 정보를 우리는 제공받을 수 있다(김화영, 2012: 114-125). 이는 마치 종교현상학자 루돌프 오토(Rudolf Otto)가 인류 공통으로 나타나는 종교의 원형과 그것이 진보하고 발전하는 현상을 감정과 의식화의 차원으로 밝혀 내었고, 또 오늘날 심리학의 다양한 도구들을 통하여 영성의 핵심적인 부분인 내면의 에너지와 동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밝혀 주는 방식이다. 본 글에서의 영적 지수에 대한 계량화는 이러한 의미와 방식을 담고 있다.

영성은 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영적 발달이 청소년 발달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성은 청소년의 긍정적 성과를 위한 하나의 자원이 되고 있어 도덕적 가치에 대한 신념이 청소년들의 자기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를 예방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영성은 청소년의 정체성 발달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와 연결해 주고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위기극복의 기반이 될 수 있다(김미경, 2013: 11-14). 청소년기에 성장한 영성은 성인 이후 시기에 삶의 태도에 영향을 주며 지속적인 성장의 기본 바탕이 된다(김소연, 2011: 17-29). 따라서 청소년기에 영성성숙은 성장 및 발달과 관련됨과 동시에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영적 성숙이나 영적 안녕에 대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강경아 외(2009: 343-349)의 연구와 강은실(2003: 255)의 연구에서는 영적안녕감과 자아개념 및 자아존

중감과 관련성이 있음, 박지아(2003: 196)의 연구에서는 가정, 환경적 위험요소에 노출되었지만 적응 유연한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로 영적안녕감이 작용함을 보고하였다. 강은실 외(2004: 196)는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자살의도가 낮음을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성은 최근 들어 인간발달의 한 부분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형성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결과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부모-자녀 관계, 종교 성향, 영적 성숙도와의 관계

부모-자녀 관계와 종교 성향, 영적 성숙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는데 박지아(2003: 3)는 청소년의 종교적 안녕과 부모애착, 실존적 안녕과 부모애착간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 각 두 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적어 이와 유사한 개념의 연구들을 탐색한 결과 이창호(2009: 86), 황혜리·김주현(2007: 326-330), 이영희·박준하(2011: 189-209)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마음에 형성되는 하나님 이미지에 영향을 끼쳐 부모님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하나님 이미지가 긍정적이었다고 하였다. 충분히 좋은 엄마(good enough mother)로서의 하나님 이미지가 자녀에 마음에 형성된다면 그 자녀가 안정된 마음에 질 높은 생애를 살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정선미(2008: 52-53)의 연구에서도 하나님의 이미지의 기원이 초기 모-자관계에서 아이를 다루는 태도, 아이에 대한 반영, 가족관계나 그 가족의 종교적, 정치적 배경이라는 일상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고 하여 부모-자녀 관계 및 가족관계가 종교 성향이나 영적 성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영성과 종교의 개념은 상호 교환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구별되는 개념이다. 윌버(Wilber, 1997)는 영적인 면이 인간의 의식의 기본구조라고 하였고 개인적 자아를 넘어서 인류, 영혼, 우주 등 보다 넓은 측면까지 확대된 경험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종교적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의식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황 환, 2008 재인용: 4).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허현나(2002: 17)의 연구에서 내재적 종교지향성은 영성안녕의 종교적 안녕과 존재적 안녕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외재적

종교지향성은 종교적 안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톨릭 청소년의 영적 성숙도와 종교 성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김미경(2013: 5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이 외재적 성향과 내재적 성향 모두에서 관련성이 있으며 다른 연구와는 달리 외재적 성향과의 영적 성숙 관련정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재연(2008: 2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내재적 성향, 외재적 성향과 영적 성숙과의 관련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발달과 성숙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종교 성향과 영적 성숙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됨을 예측할 수 있다. 신체, 마음, 영성에 대한 안녕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종교 성향과 영적 성숙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북도 소재 3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3년 1월에 모두 790명을 무선 표집하였다. 그 중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34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은 144명, 여학생은 197명이다.

2. 측정도구

1) 부모-자녀 관계

최인재(2007: 45-56)가 제작한 ‘한국형 부모-자녀 관계 척도’를 최난경(2012: 27)이 재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친밀, 헌신, 존경, 엄격의 4개의 하위영역에 걸쳐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친밀과 헌신, 존경의 개념이 중첩되는 개념으로 생각되어, 부모-자녀간의 명확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친밀, 엄격의 요인만 사용하였다. 척도는 ‘매우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친밀은 7문항이며 엄격은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내적 일치도 (Cronbach' *Alpah*)는 부친밀 .908, 모친밀 .889, 부엄격 .872, 모엄격 .897로 나타났다.

2) 종교 성향

종교 성향의 측정을 위하여 올포트가 개발한 내재적-외재적 종교 성향척도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연구(이혜령, 2003: 15-16)와 같이 총 20문항의 척도 중 8문항은 내재적 성향을, 11문항은 외재적 성향을 평가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머지 한 문항은 집단을 구분하는 척도이다. 척도의 구성은 ‘매우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문항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는 내재적 성향 .846, 외재적 성향 .769로 나타났다.

3) 영적 성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적 성숙도의 척도는 김재연(2008: 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매우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 15문항으로 영성경험은 7문항, 내적자원 4문항, 관계성은 4문항이다. 문항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는 영성경험 .746, 내적자원 .737, 관계성 .626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부모 자녀와의 관계, 내·외적 종교 성향, 영적 성숙도 간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부모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친밀감과, 부·모의 엄격함을 관측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내·외적 종교 성향은 각각 관측변인으로 사용하였고 영적 성숙도는 하위 변인이 없어 관측변인으로 구조 방정식에 투입하였다.

자료의 신뢰도와 상관관계, 기술적 통계를 위해서는 SPSS 20.0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모형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Amos18.0의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정규분포의 가정 검증, 슈로우트와 볼거(Shrout and Bolger, 2002: 442-445)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에 의한 모형의 적합도 검증, 변인들의 직·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 *GFI*, *NFI*, *RMR* 을 통해 평가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문제 1의 검증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변인들 간의 상관, 평균, 왜도, 첨도, 분산팽창계수(VIF)는 <표 1> 과 같다.

<표 1> 측정 변인들의 통계치

	부 친밀	모 친밀	부 업격	모 업격	내재적 성향	외재적 성향	영성 경험	내적 자원	관계성
모친밀	.648***								
부업격	.001	-.082							
모업격	-.076	-.082	.778***						
내재적 성향	.155**	.154**	-.008	-.016					
외재적 성향	.051	.023	.040	.075	-.041				
영성 경험	.131*	.147**	-.031	-.014	.713***	-.128*			
내적 자원	.233***	.218***	-.024	-.049	.448***	.028	.450***		
관계성	.111*	.066	-.042	-.029	.237***	.282***	.192***	.314***	
M	3.284	3.712	2.820	2.861	2.678	2.452	2.573	2.710	2.826
SD	.864	.788	1.186	1.254	.571	.414	.536	.511	.469
왜도	-.398	-.759	.157	.071	-.529	-.819	-.156	.037	-.660
첨도	-.063	.849	-.995	-1.203	.857	1.274	.317	.198	1.063
VIF	1.801	1.774	2.614	2.614	2.153	1.142	2.194	1.437	1.240

* $p < .05$, ** $p < .01$, *** $p < .001$

변인들 간의 상관은 -.082에서 .778까지 분포하였다. 부·모의 친밀은 부·모의 업격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부·모의 친밀은 부, 모 각각 내재적 종교 성

향과는 유의 수준 $p < .01$ 의 정적 관계를 보였고 외재적 성향과는 정적이긴 하나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나타냈다. 영적 성숙도의 영성경험과는 부친밀은 $.131(p < .05)$ 모친밀과는 $.147(p < .01)$ 의 관계를 나타냈다. 부친밀은 영적 성숙도의 모든 하위 변인과 $.111 \sim .233(p < .01$ 이상)의 관계를 보였고, 모친밀은 영성경험과는 $.147(p < .01)$, 내적자원과는 $.218(p < .001)$ 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부·모 엄격은 모든 변인과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나타냈다. 하지만 외재적 성향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고 내재적 성향과 영성성숙 전체 변인과 부적인 상관을 일관성 있게 보인 점은 매우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한 자료이다.

내재적 성향은 외재적 성향과 $-.041$ 의 유의하지 않은 부적인 관계($p > .01$)를 보였다. 그러나 영적 성숙도의 영성경험과는 $.713$, 내적자원과는 $.448$, 관계성과는 $.237$ 의 높은 유의수준 ($p < .001$)을 보였다.

외재적 종교 성향은 영성경험과는 $-.128(p < .01)$ 의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내적자원과는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관계성은 $.282(p < .001)$ 의 상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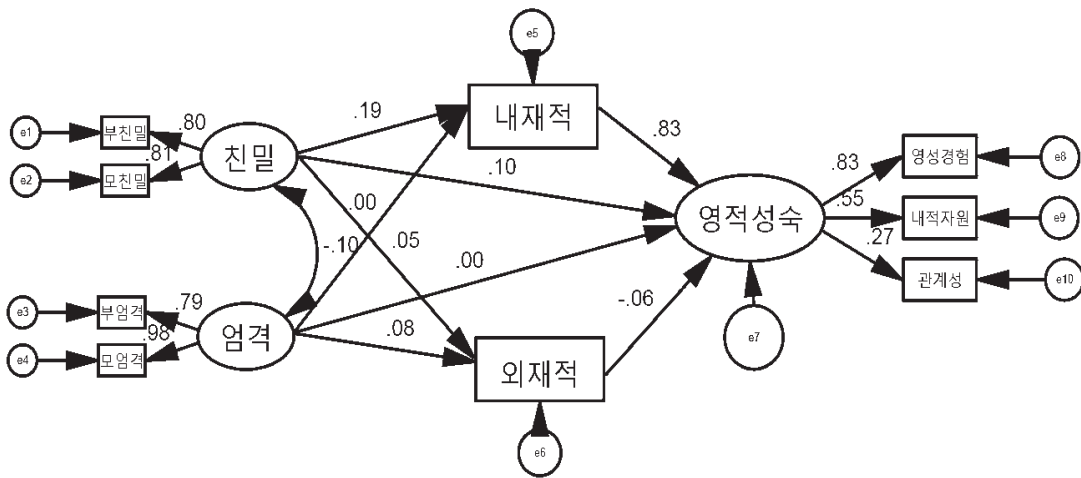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01$ 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계수(VIF)를 통해 살펴본 다중공선선도 $1.240 \sim 2.614$ 까지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엄격, 외재적성향, 관계성이 정규성 분포의 가정을 벗어났다. 따라서 본 자료는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의 가정을 벗어날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집의 크기가 클 경우 안정된 모수치와 표준 오차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집에서의 추정방법은 ML방법을 사용하여서 추정하였고 부트스트랩(Bootstrap) 표집을 200회 실시하고 95% 신뢰구간을 사용하여 유의도 수준 5%에서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연구 적합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 검증

적합도 지수	X2	df	p	GFI	NFI	RMR
연구모형	78.468	21	.178	.950	.918	.019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X^2 = 78.468$ ($df = 21$, $p = .178$), 기초적합지수 $GFI = .950$ 로 나타났고, 표준적합지수 $NFI = .918$, 원소 간 평균차이 $RMR = .019$ 로 나타났다. X^2 값의 기준은 유의확률이 $> \alpha = .05$ 인 경우, 절대부합지수인 GFI 는 0.9 이상, RMR 은 0.05이하, 증분부합지수인 NFI 는 0.9이상 일 때 적정모형으로 인정되는데 본 연구모형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경로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연구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그림 1]에 제시된 구조적인 관계는 표준모수추정치(standardized coefficient)를 제시한 것이다. 변인 간의 평균모수추정치, 추정치의 표준 오차(SE), 표준 오차의 표준 편차(SE-SE)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평균모수추정치는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평균 모수추정치를 의미한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200번 수행하여 발생한 추정값의 표준 오차를 의미하는 것이며 표준 오차의 표준 오차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에 의한 표준 오차의 표준 편차를 의미한다.

〈표 3〉 변인 간 경로계수

경로	평균모수 추정치 (Mean)	추정치의 표준 오차 (SE)	표준 오차의 표준 오차 (SE-SE)	p
친밀 → 내재적 성향	.192	.072	.004	.010*
친밀 → 외재적 성향	.041	.065	.003	.530
친밀 → 영적 성숙도	.100	.053	.003	.083
엄격 → 내재적 성향	.000	.068	.003	.940
엄격 → 외재적 성향	.076	.053	.003	.163
엄격 → 영적 성숙도	-.008	.041	.002	.821
내재적 성향 → 영적 성숙도	.833	.044	.002	.000***
외재적 성향 → 영적 성숙도	-.056	.071	.004	.428

* $p < .05$, *** $p < .001$

변인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부·모 친밀이 내재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192 ($p < .01$)로 나타났으며 외재적 성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 부·모 자녀관계가 친밀하다 하여도 영적 성숙도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부·모 엄격은 종교의 내재적 성향, 외재적 성향, 영적 성향과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p > .01$). 내재적 성향은 영적 성숙도에 .833의 높은 유의한 영향력($p < .001$)을 보였으나, 외재적 성향은 영적 성숙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p > .05$).

2. 연구 문제 2의 검증

부모-자녀관계, 영적 성숙도의 관계에서 종교 성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변인 간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표준화 추정치, 부트스트랩(Bootstrap)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을 제시<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변인 간 상대적 영향력

효과	변인 간 경로	B	SE	BC 95% CI
직접효과	부모친밀 → 내재적 성향	.192*	.072	.050~.333
	내재적 성향 → 영적 성숙도	.833*	.044	.737~.915
간접효과 (매개)	부모친밀 → 내재적 성향 → 영적 성숙도	.157*	.060	.032~.281

* $p < .05$, Bootstrap=200번, BC=Bias-Corrected, CI=Confidence Interval.

BC에 의한 95%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할 경우 $\alpha = .05$ 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 연구 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 친밀은 내재적 성향에 $.192(p < .05)$, 내재적 종교 성향은 영적 성숙도에 $.833(p < .001)$ 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2에서 부모-자녀관계, 영적 성숙도의 관계에서 종교 성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모 친밀 변인과 영적 성숙도 사이에 내재적 종교 성향만이 유의한 매개효과 $.157(p < .05)$ 을 확인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자녀관계와 종교 성향, 영적 성숙도 변인들의 관계를 탐색해 보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라 구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와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검증결과와 선행연구에서 밝힌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관계와 종교 성향, 영적 성숙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세 변인간의 관계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부모와 친밀관계는 내재적 종교 성향과 모두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와 엄격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내재적 종교 성향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창호(2009: 76), 정선미(2008: 44-52)의 연구와 같이 부모와 관계를 잘 형성한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의미를 잘 형성하거나 종교적 안정감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엄격한 관계가 외재적 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자녀가 엄격한 관계의 경우 내·외재적 종교 성향과 전체적으로 .1 미만의 미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부모 자녀관계가 엄격할 경우 종교 성향에 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엄격하다고 인식한 청소년의 경우 영적 성숙도와는 모두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청소년의 내재적 종교 성향은 영적 성숙도에 매우 높은 상관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허현나(2002: 17), 김재연(2008: 20-31)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김미경(2013: 55)과는 다른 결과였는데, 매우 높은 상관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통계적 결과와 여러 이론적 배경으로 볼 때, 내적인 종교 성향이 영적 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외재적 성향은 영적 성숙도에 특히 영적 경험에 유의한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관계성에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성도들과의 ‘관계’가 내 안에서의 내면적 섬김인지, 외재적 섬김인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부모-자녀관계, 영적 성숙도의 관계에서 종교 성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신앙적인 교육에 대한 개입과 시사점을 제공하는 면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 부모와 친밀관계와 영적 성숙도 사이에 내재적 성향은 완전매개를 하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기존의 연구가 부모-자녀관계, 종교 성향, 영적 성숙도의 모형을 설정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결과를 제시할 수 없지만 내재적 성향을 갖도록 교회학교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영적 성숙도에 이르게 하는 길임을 주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친밀한 관계는 내재적 종교 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서 영적 성숙에 이른다. 그러나 부모가 엄격하면 내재적 종교 성향과는 부적인 관계, 외재적 종교 성향과는 정적인 관계, 영적 성숙도와는 모두 부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는 연구 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부모가 엄격하고 외재적 신앙에 기초한 종교문화를 자녀들에게 강조한다면 자녀들의 내재적 종교관과 영적 성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앙의 선배인 부모, 교사, 목회자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결과, 부모-자녀관계, 종교 성향, 영적 성숙도의 변인 간 관계를 탐색하였으나 연구의 제한점을 정리하여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전북지역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같은 고등학생도 지역적 상황에 따라 영향요인의 정도와 크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부모-자녀와의 관계는 전 연령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종교 성향이나 영적 성숙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일부 연구에서 청소년기에는 외재적 종교 성향도 요구되어지는 결과가 있는 만큼 외재적 종교 성향의 순기능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부모교육과 내재적인 종교 성향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경아 외 (2009). “중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 및 영적 안녕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 15(4). 343-349.
- 강은실 (2003). “청소년의 삶의 목적, 영적 안녕,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 12(3). 245-259.
- 강은실 외 (2004). “청소년의 자살의도, 우울, 영적안녕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 13(2). 190-199.
- 김미경 (2013). “청소년의 영적 성숙도와 종교 성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가톨릭청소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김소연 (2011). “청소년의 영성과 종교 성향이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가톨릭 청소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김은영 (2012). “하나님 이미지와 부모 자녀 애착 관계에 대한 통합적 고찰.” 『가족과 상담』 . 2(2). 21-30.
- 김은희 (2006). “청소년의 종교성향과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김재연 (2008). “청소년의 영적 성숙도와 종교 성향과 자아탄력성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김화영 (2012). “종교개혁 영성의 의미.” 『영성학교』 . 나다영성연구소: 나다북스, 114-124.
- 박지아 (2003). “적응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애착 간의 관계-적응유연 청소년, 위험 청소년, 유능청소년의 비교.”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현선 (1998). “부모-자녀관계와 공부압력에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문제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 6. 93-118.
- 오복자·강경아 (2000). “영성개념분석.” 『대한간호학회지』 . 30(5). 1145-1155.
- 이상균 (2007). “청소년의 종교성숙도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가정 및 학교생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이영희·박준하 (2011). “기독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하나님 이미지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 21. 189-209.
- 이창호 (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이혜령 (2003). “종교 성향과 강박적 성격특성이 사고-행동 융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임희진 외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선미 (2009).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 이론에서 본 인간의 하나님 이미지 형성.” 석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 질병관리본부 (2012). “청소년 온라인건강 행태조사.”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최난경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학습동기의 관계: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을 매개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최인재 (2007).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5(2). 45-56.
- 최태훈 (2013). “청소년의 종교성향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청소년행동연구』. 18. 167-183.
- 허찬(2006). “종교 성향, 스트레스 대처 및 심리적 적응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현나.(2002). “종교적 지향성과 영성적 안녕 및 심리적 안녕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황환 (2008). “영성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황혜리 · 김주현 (2007). “기독교 대학 신입생의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 및 하나님 이미지와 연관성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4. 311-335.
- Allport, G. W. (1967). “The religious context of prejudice.” *Pastoral Psychology* 18(5). 20-30.
- Peteet, J. R. (1985). “Religion issues presented by cancer patients seen in psychiatric consultation.”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3(1). 53-66.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 7(4), 442-445.

Abstract

The Relations on Parent-Child Relationships, Religious Orientation, and Spiritual Maturity of Adolescents

Shin-il Im (Jesus University)

Hee-kyoung Hyoung (Jesus University)

Dae-yoong Kim (Jesu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 and structure on parent-child relationships, religious orientation, and spiritual maturity for adolescents. Another pursuing goal is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religious orientation works to be a mediating effect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spiritual maturity.

This survey was carried out by using questionnaires and the respondents were high school students. They attended three different high schools in Jeollabuk-do. Th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was seven hundred and ninety students(790). Among them, we selected three hundred and forty-one (341) students who identified themselves as Christians.

The results from the structur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hypothetical model generally seemed to fit a categorical fitness index. Secondly, it appears a positive relation strongly exists between the intimacy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However the stern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 and child didn't have an effect on the youth's religious life, which aim is to be fruitful intrinsically and extrinsically. Thirdly, it is only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that influences spiritual maturity.

In conclusion, we can confirm that religious orient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mediating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spiritual maturity.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ions and limitations were described.

Key Words: adolescents, parent-child relationships, religious orientation,
spiritual maturity